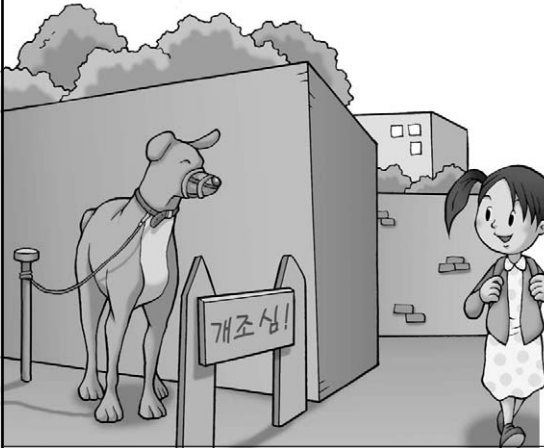


# 어린이 개 물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최근 개를 사육하는 사람들의 안전조치 미흡과 어린이 안전의식 부족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개 소유자(개 사육장 주인, 개별 소유자 모두 포함)는 개 관리 방법을 철저히 지켜야하며, 보호자는 아이들이 개에 물리지 않도록 "개조심 수칙" 등을 반복적으로 주지시킨다.

### ◀ 개[애완견 포함] 소유주의 주의사항 ▶


- 개는 반드시 목에 줄을 매고 안전하게 묶어두어야 한다.
- 사나운 개는 반드시 입에 망을 씌워야 한다.
- 개 소유주는 문 앞 등에 눈에 잘 띄도록 「개조심」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 개를 놀이터, 학교운동장 등에 데리고 나오면 안된다.(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제외)
- 개를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서울동부지법 판례 : 자신이 기르던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주인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음

### ◀ 개조심! 5가지 수칙 ▶

- 개 앞에 떨어진 먹이를 줌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 목덜미는 사냥감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절대 줍지 않는다
- 개는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제압당한다고

느끼며, 머리를 두드리면 공포감을 느끼므로, 낯선 개는 손대지 않는다. 특히, 꼬리는 절대 잡아선 안된다.

- 개가 물 경우 소리를 지르면 개의 공격본능을 촉발시킬 수도 있으나, 큰소리로 주위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가 짖는 것은 상대방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며,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크르릉" 소리를 내는 것은 공격신호다. 따라서 짖지 않고 노려보는 개를 조심하고, 벗어날 때도 뛰지 말고 침착하게 천천히 걸어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개를 소유한 주인의 경우는 자신의 개가 이웃을 보고 으르렁거릴 때 다독이거나 달래지 말고 개를 제압하여야 한다. 다독이거나 달래면 개는 칭찬으로 오인하여 더 흥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 등에 물렸을 경우 즉시 비눗물로 잘 씻은 후 알코올(70%)로 소독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